

‘근대 문화유산’ 전남·일신방직 개발 다음달 최종 윤곽

공장부지 30만㎡ ‘공공성+보존’ 최적인 관심사

내일 전문가 TF 전체회의·건축물 현황 등 공유

광주 도심의 마지막 노르자위 땅으로 평가받고 있는 북구 임동 전남·일신방직 공장부지 개발계획이 24일 건축물 현황보고를 시작으로 3월 중순께 세부 윤곽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전남·일신방직 부지 협상을 위한 전문가 합동 태스크포스(TF)는 오는 24일 20여 명의 전체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부지 활용 방안 중간 용역 결과를 공유하고 보완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용역 업체는 전남대 철도역 교수와 경기대 안창모 교수, 광주교대 김덕진 교수 등 내로라하는 국내 문화재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 외부자문단에서 선정, 객관성을 확보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지난해 11월 이후 3개월간 진행된 건축물과 지장물 등에 대한 기본 현황 보고가 이뤄지고, 이를 토대로 개발과 보존을 놓고 어떻게, 어디까지 진행할 지 기초 밑그림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공장 내 자체 발전소는 역사성 등을 감안해 그대로 유지하고, 공장과 설비, 기숙사 등 나머지 핵심 시설들은 어떤 식으로 개발 또는 보존할 지가 핵심이다. 도시 경쟁력과 시민 편의를

위해 특급호텔이나 대형 마트가 들어설 지 여부도 관심사다.

고층 아파트나 레지던스 호텔, 주상복합 공동주택 등은 광주시의 도시계획 기본 방침상 쉽지 않을 전망이다.

최종 용역보고서는 3월15일 전후로 제출될 예정이다.

일제 강점기에 들어선 두 공장은 조선인 여성노동자 착취와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여성근로자들의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대표적인 근대산업 문화유산으로 손꼽힌다.

전방 16만여㎡, 일신방직 14만여㎡ 등 총 30만㎡에 이르는 부지가 지난해 모 부동산 개발업체에 6800여 억원에 매각되면서 아파트 건립 등 난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15개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공공성 확보를 위한 대책위를 구성하는 등 사회적 반발이 거세다.

이와 관련, 이용섭 시장은 이날 “처음 개발이 논의됐을 때, 가장 쉬운 방법이어서인지 아파트 위주 개발 얘기가 많이 나왔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며 “이에 TF를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는 만큼 지켜봐 달라”고



옛 전남·일신방직. (사진=광주시 제공)

밝혔다. 이어 “문화유산이라고 해서 과도하게 보존해 정작 시민들에게 진짜 필요한 인프라나 편의시설을 외면해선 안된다”는 시민 의견도 적지 않다”며 “145만 시민 모두가 박수칠 수 있는 안은 없겠지만, 다수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치우침 없이 시가 중심을 잡고 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전남·일신방직은 1935년 일본 방직업체가 설립한 공장이 모태로 1934년 종연방직(가네보 방직)으로 출발했다. 해방 이후에는 정부에서 관리하다가 1951년 민간에 불하돼 전방 주식회사로 민영화된 데 이어 다시 1961년 지분 분할로 ‘일신방직’이 추가로 설립됐다. 전남방직은 2017년 말 가동을 중단했고, 일신방직은 현재까지 부분 가동 중이다.

기동취재본부

봄인 줄 알았는데 광주·전남 내일까지 한파특보

북서쪽에서 찬풍기 남하...오늘 오후부터 바람 강해져 체감온도 ‘뚝’

지난 주말 완연한 봄 날씨를 보였던 광주·전남에 또다시 맹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예보됐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따른 건강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광주기상청은 22일 오후 10시를 기해 광주와 영광·함평·장성·담양 등 전남 4개 군에 한파특보를 내린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이날 오후부터 북서쪽에서 찬풍기가 남하, 추위가 오는 24일까지 기습을 부릴 것으로 봤다.

23일 아침 기온은 이날 오전보다 10도 이상 큰 폭으로 떨어져 영하 5도 안팎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 오후부터는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가 더욱 낮을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다.

앞서 전남 낮 최고기온은 순천 23.7도, 장흥·광양 23.3도, 보성 23.2도, 광주 22.6도, 강진 22.4도, 고흥 21.9도, 진도 21.4도, 해남 20.9도, 영광 20.8도, 목포 20.1도 등으로 나타났다.

광주기상청 관계자는 “기온이 하루 사이에 큰 폭으로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면역력 저하 등 건강 관리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민정기자

광주·전남 코로나19 백신접종 동의 94.5%...26일 시작

전국 평균 93.6%보다 높아...오는 11월까지 순차 접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 시작되는 가운데 광주지역 요양병원 등 1차 접종 대상자 94.5%가 동의했다. 전남은 요양병원 94%, 요양시설 97%가 백신 접종을 희망했다.

22일 광주시 방역당국에 따르면 오는 26일부터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요양·정신병원 65세미만에게 접종한다.

1분기 접종 대상은 148개소 1만956명이며 이중 1만351명(94.5%)이 동의했다. 요양병원 정신병원은 시설에서 자체접종한다.

고위험군 접종이 완료되면 종사자와 119구급대, 역학·검역요원 등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106개소 1만4415명에 대해 접종(3월-5월)이 이뤄진다. 의료기관 종사자의 경우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소방 등은 보건소 등에서 이뤄진다.

또 호남지역 코로나19 21개 치료병원 5295명에 대한 접종도 3월 중 진행된다.

코로나19 고위험군 종사자와 65세미만 백신 접종이 완료되면 노인재가 복지시설(8665명)·장애인거주시설(1760명) 등 총 2만5666명에 대한 2분기 접종이 진행된다.

일반 시민들에 대한 접종은 오는 7월 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 방역당국은 오는 11월까지 145만명 중 101만5000명(70%)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지역별 접종센터는 다음달 서구 염주종합체육관 개소를 시작으로 동구 문화센터, 남구 다목적체육관, 북구 전남대스포츠펀드, 광산구 보훈병원 재활체육관 등지에 5월-7월 문을 연다.

전남지역은 요양병원 접종 대상자 1만2088명 중 1만1300명(94%), 요양시설 5653명 중 5484명(97%)가 동의했다.

아스트라제네카 전국 접종동의 비율은 93.6%이다.

기동취재본부

오늘의 위협을 내일의 안전으로

마스크를 만들어 나누고
임대로 인하여 동참하는 여러분이 있어
우리는 코로나19를 반드시 이깁니다.

자랑스러운 시민이
평화로운 일상을 하루빨리 누리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내일이 행복한 광산
매력·활력·동력

코로나19 양면 극복을 위한
임대로 인하여
착한 임대인
여름2지구 상가 상인회

코로나19 양면 극복을 위한
친환경 마스크

발달 평가 검사 시스템